



늘 그댔 향해서 두근거리는 내 MOM

하트 리듬 희망 특별상

장 O 울

2018년 이른 봄, 엄마는 잦은 체증과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셨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터라 군 단위의 동네 의원과 한의원을 전전하며 위염, 장염 진단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식사는커녕 먹는 족족 구토와 옆구리 통증까지 온종일 계속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그제서야 5년 전 엄마가 심장질환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와 증세가 비슷함을 느낀 우리는 부랴부랴 한 시간 남짓 거리의 지역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진료를 볼 수 있었지만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급 심장 병원의 초진 예약, 길어지는 대기여 엄마는 지쳐가고,, 마침내 같은 해 6월 진료를 보게 되었다.

엄마의 진단서에 적힌 최종 진단명은 승모판과 대동맥판막 치환술 상태와 4등급인 승모판 폐쇄부전증, 중등도의 승모판 협착증, 3등급인 삼첨판 폐쇄부전증, 폐쇄부전이 있는 대동맥판 협착, 심방세동, 심방성 빈맥등을 포함한 부진단명 23가지다.

그동안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이라는 병명과 부정맥이 있고, 언젠가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뿐이었다.

입원과 함께 시작된 수많은 검사로 엄마는 견지도 못할 만큼 지쳐갔고 너무 많이 쇠약해졌을 무렵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다.

당시 엄마에게 유일한 치료법은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6월 27일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 수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때 갑자기 수술 도중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방 앞으로 나오셨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 상황이 되도록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느냐며, 에크모 장착과 최악의 결과까지 생각을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10시간이 넘게 걸려 끝난 첫 수술은 기대와는 달리 엄마의 열린 가슴은 닫히지 못한 채 나와야 했고, 중환자실로 간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한없이 더디기만 했다.

2차 수술이 시작되었고 더 나쁜 소식만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수술실 앞 전광판 속 수술 진행 상황 안내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얼마나 지났을까.

회복실로 이동 중이라는 엄마의 이름 세 글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중 케어가 필요한 엄마는 회복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행히도 에크모 장착은 하지 않았으며 열려있던 가슴도 닫혔다.

그렇게 엄마는 이중판막 치환술과 삼첨판막 성형술, 심방중결결손 교정술, 좌심방 혈전 제거술, 그리고 부정맥 수술까지 마쳤다.

많이 예민해져 있던 엄마는 병원 생활을 힘들어하셨고, 예정된 일정보다 조금 이른 퇴원을 했다.

그게 문제였던걸까, 메스꺼움과 식욕부진은 계속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7월 19일 열이 오르고 응급상황이다.

약 3시간에 걸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에 사람은 넘쳐났고 밤을 꼬박 지새우고 아침이 밝아 오고 나서야 병실에 배정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우심방주위 혈종으로 시작된 제거술로 인해 중격동염이 발생되었고 그날 열린 가슴은 8





월이 다 가도록 단지 못했다.

수술실에 들어간 엄마는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왔다 갔다 하며 수차례 수술을 하고 또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두 번, 20분 면회를 위하여 24시간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씻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지역번호 02- 부재중,, 병원이었다.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엄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걸 알았는지 9월이 되어 드디어 엄마의 열린 가슴이 굳게 아주 단단히 닫혔다.

그렇게 일반 병실로 오게 되고 이제 잘 먹고 회복만 하면 퇴원이라며 행복해함도 잠시,, 엄마의 맥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50, 48,, 45,, 42,,,, 결국 엄마는 다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급하게 처치는 되었지만 차후 동일 상황과 위험을 대비하여 인공 심장박동기 이식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다.

제일 어려운 결정이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 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겁이 나고.

맥박을 원상 복귀 시킬 수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쩔 수 없었다 사실 이걸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였다.

엄마는 무섭다며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공포감에 두려워했지만 막상 담당 교수님 상담 후에는 조금은 안정을 되찾았다.

한 시간쯤 걸린 시술은 금방 끝났고 병실에서 바로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 3개월가량 지나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과, 기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심할 것, 인공 박동기 삽입한 쪽 팔 들어 올리지 말 것, 전자파 노출 주의 등, 각종 교육과 주의사항도 듣고 차후 심장박동기 클리닉에 대한 안내도 받았다.

엄마의 pace-maker 세팅 값은 50.

참 잘한 결정이고 후회 없는 결정이다.

맥박이 우리 건강과 얼마큼의 관련이 있는지 그동안 한 번도 중요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맥박수는 건강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자가 진단을 통하여 심장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한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기초 습관, 증상이 있기 전에 맥박수 체크가 일상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엄마의 경우도 그랬듯,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지역 간 낙후된 의료 서비스와 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2021년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오늘 아침도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을 시작한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나에게 들리도록,

늘 나를 향해서 두근거리는 내 맘.

